

중앙일보

내달부터 유학생·취업자 中입국 가능...장하성 "비자 발급 합의"

기사입력 2020-07-27 13:22 최종수정 2020-07-27 13:37



장하성 주중 대사가 27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의 비자 발급 협의 결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한국인 유학생과 취업자 등이 다음 달부터 비자를 받아 중국에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하성 주중 한국 대사는 27일 베이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중국이 유학생과 취업자(Z비자 소지자), 비자 신청 시점에 유효한 거류증이 있는 교민 등 3개 그룹에 대한 비자 발급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비자 발급 개시 시점은 8월 초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거류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한이 만료된 사람은 입국 가능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장하성 대사는 "이미 만료된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오는 28일 공관장 회의를 열어 비자 발급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역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말 유효한 체류 비자와 거류허가증을 가진 외국인도 입국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 ▶ 년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 ▶ 그래서, 팩트가 뭐야? 궁금하면 '팩플'
- ▶ 세상 쉬운 내 돈 관리 '그게머니'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25&aid=0003021047>
